광주 우치동물원서도 사자·호랑이 등 맹수 코앞에서 볼 수 있다

6억 들여 투명유리 설치 관람환경 개선

이르면 내년부터 광주 우치동물원을 찾으면 사자와 호랑이를 눈앞에서 구경할 수 있게 된다.

22일 우치동물원에 따르면 호랑이·사자 등 맹수류 아프리카관(2256㎡·682.4평)에 예산 6억 원을 투입해 동물 생태적·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우리(방사장)로 개선한다.

우치동물원은 이달 초 사업 예산 6억원을 광주시에 지원 요청한 상태다.

우치동물원은 현재 호랑이·사자 우리 등 2곳으로 나뉜 방사장을 3곳으로 나눈 뒤 연못·나무를 조성하는 등 서식 환경을 자연스럽게 바꿔 맹수들의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그간 우치동물원은 맹수 우리 바닥이 콘크리트 구조로 돼 있는가 하면 몸을 숨길 공간을 찾지 못해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동물들이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광주일보 8월 7일자 6면〉

관람객들의 관람 편의도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사자·호랑이 우리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코스 중 한 곳이지만 예전의 원거리 관람방식으로 지어져 불편함이 많았다.

또 동물 탈출에 대비해 만들어 놓은 깊이 10m·너비 70m의 함정이 우리와 관람대 사이에 있어 가까이서 관람하기 어려웠다.

우치동물원은 맹수 우리 앞에 설치된 함정을 메우고 바닥을 다진 뒤 투명 유리 관람벽을 설치해 맹수들을 눈앞에서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자·호랑이 우리 안에 투명 유리로 된 볼록 관람창을 만들어 관람객들이 이 관람창을 통해 맹수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선 지난 2010년 맹수 우리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해 관람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3년 새 남편과 자식을 잃고 홀로 사는 암컷 기린 '아린'도 새로운 짝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우치동물원은 수컷 기린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검토한 뒤 광주시에 사업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내년에 아프리카관 관람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 광주시에 사업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각 동물원들이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생태적 환경으로 바뀌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스마트폰 활용 수업 22일 디지털 교과서 정책연구학교 보고회가 열린 광주시 북구 태봉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패드를 활용해 수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추락하는 '실력광주'…'하향 평준화' 도마에

고교 1·2등급 비율 줄고 8·9등급은 늘어…절반 이상이 중하위권에

2013학년도 수능 분석 결과

광주지역 수험생들의 수능성적이 하향 평준화돼 '실력 광주'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박인화 교육의원(광주 광산구)은 22일 제22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 학생들의 수능성적 하락 문제에 대해 추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학년도 수능 성적'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전체 학생의 평균 표준점수가 언어 103.3점, 수리가 103.2점, 수리나 103.1점, 외국어 102.7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3.7~4.1점 높았다. 하지만 표준점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언어·수리가·수리나·외국어 모든 영역 표준점수가 떨어졌다. 대구·울산·전남·경북·충남·제주의 경우 한 영역 이상 표준점수가 증가해 성적이 상향되고 있으나 광주는 한 영역에서도 표준점수를 올리지 못했다.

최상급인 1·2등급의 비율은 감소한 반면 최하위권인 8·9등급 비율은 증가했고, 광주학생 절반 이상이 중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 공·사립고 간 성적 격차도 벌어져 '공저사고'(公低私高·공립고 학력이 낮고 사립고는 높음)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수능성적이 우수한 1·2등급 비율 순위 상위 20개 학교에서 광주과학고와 자율형공립고인 상일여고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립고는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고교 강제배정과 평준화 정책도 실력 광주의 추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계는 공립고의 경우 중·고교 순환근무로 인한 입시지도 공백, 교육청의 학교 자율성 통제 등 교원 동기부여 부재가 학력 격차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는 반면, 시교육청은 성적 우수학생의 사립고 쏠림현상 때문이라며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신규 우수교사 일반고 우선 배치, 고3 담임 경력 가산점, 진학지도 우수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 전남교육청의 일반고 활성화 방안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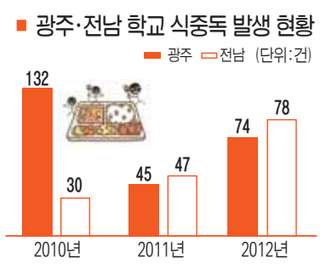
광주·전남 학교 식중독 발생 급증

작년 4건에 152명…급식시설 현대화 61% 그쳐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학교 식중독 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은 61%에 그쳐 식중독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22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내놓은 학교급식 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식중독은 모두 4건 152명에게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 3건 92명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식중독 예방을 위해 낡고 오래된 학교 급식시설을 개선하는 현대화 사업은 부진해 급식시설 설치학교 1007곳 중 지난해 말 현재 현대화 사업을 완료한 학교는 624개교로 61%에 그쳤다. 광주는 286곳 중 147개교(51.4%), 전남은 721곳 중 477개교(66.2%)만이 급식시설을 현대화했다. 광주시의회 김민종 의원(광산4)도 이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전남 5개 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 평균 2.1대 1

광주·전남지역 마이스터고 5개교의 신입생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균 2.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자동화설비공고는 2.2 대 1, 한국항만물류고 2.1 대 1, 전남생명과학고 1.4 대 1, 여수석유화학고 1.9 대 1, 완도수산고 2.4 대 1이다.

광주자동화설비공고는 자동화설비과 80명 모집에 178명이 지원했다.

광양의 한국항만물류고는 물류장비기술과(60명)·물류시스템운영과(40명) 100명을 모집한 결과 212명이 지원했다. 여수석유화학고는 공정운전과(60명)·공정설비과(20명)·공정계전과(20명) 100명 정원에 224명이 지원했다. 전국 유일의 순수 농업계 마이스터고인 전남생명과학고는 친환경농업경영과(40)·친환경축산경영과(20명)·친환경자재과(40명) 100명을 모집해 152명이 지원했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개교한 완도수산고는 수산자원양식과(20명)·수산식품가공과(20명)·어선운항관리과(40명)에서 80명을 모집한 결과 201명이 지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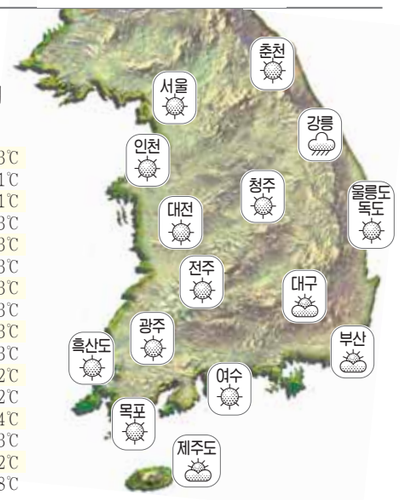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45분 해짐 17시 48분 달뜸 20시 54분 달짐 10시 28분

상강(霜降)

대체로 맑겠으며 아침 안개 끼는 곳 있겠다.

광 주	맑음	12/23℃
목 포	맑음	11/21℃
여 수	맑음	16/21℃
나 주	맑음	10/23℃
완 도	맑음	13/23℃
구 례	맑음	9/23℃
강 진	맑음	9/23℃
해 남	맑음	9/23℃
장 흥	맑음	9/23℃
순 천	맑음	9/23℃
영 광	맑음	10/22℃
진 도	맑음	11/22℃
전 주	맑음	9/24℃
군 산	맑음	11/23℃
남 원	맑음	8/22℃
흑산도	맑음	15/18℃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북동	1.5~2.5m

	밀물	썰물
목포	04:19 17:01	09:31 22:07
여수	11:23 22:14	04:50 17:2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4(목)	25(금)	26(토)	27(일)	28(월)	29(화)
날 씨						
최저/최고	12/20	9/16	8/16	8/17	7/18	8/19

'법외노조' 위기 전교조…시·도교육감 온도차

장휘국 "종전대로 존중" 장만채 "입장표명 유보"

정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고 '법외(法外) 노조'를 선택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진보 성향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장휘국 교육감이 전교조를 교원단체로 종전대로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장만채 교육감은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22일 "정부가 해직 조합원 자격 문제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키로 것은 과도한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고 하더라도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도교육청은 의견 수렴 등을 이유로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대응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전임자 복귀, 단체협약 등에 있어서는 교육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교조 광주지부의 경우 올해 8500만원의 재정지원금을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았으며, 지부장·수석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 등 4명이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연간 5000만원 가량을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청에서 사무실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 전임자는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조직국장 등 5명이며, 단체협약은 2012년 맺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